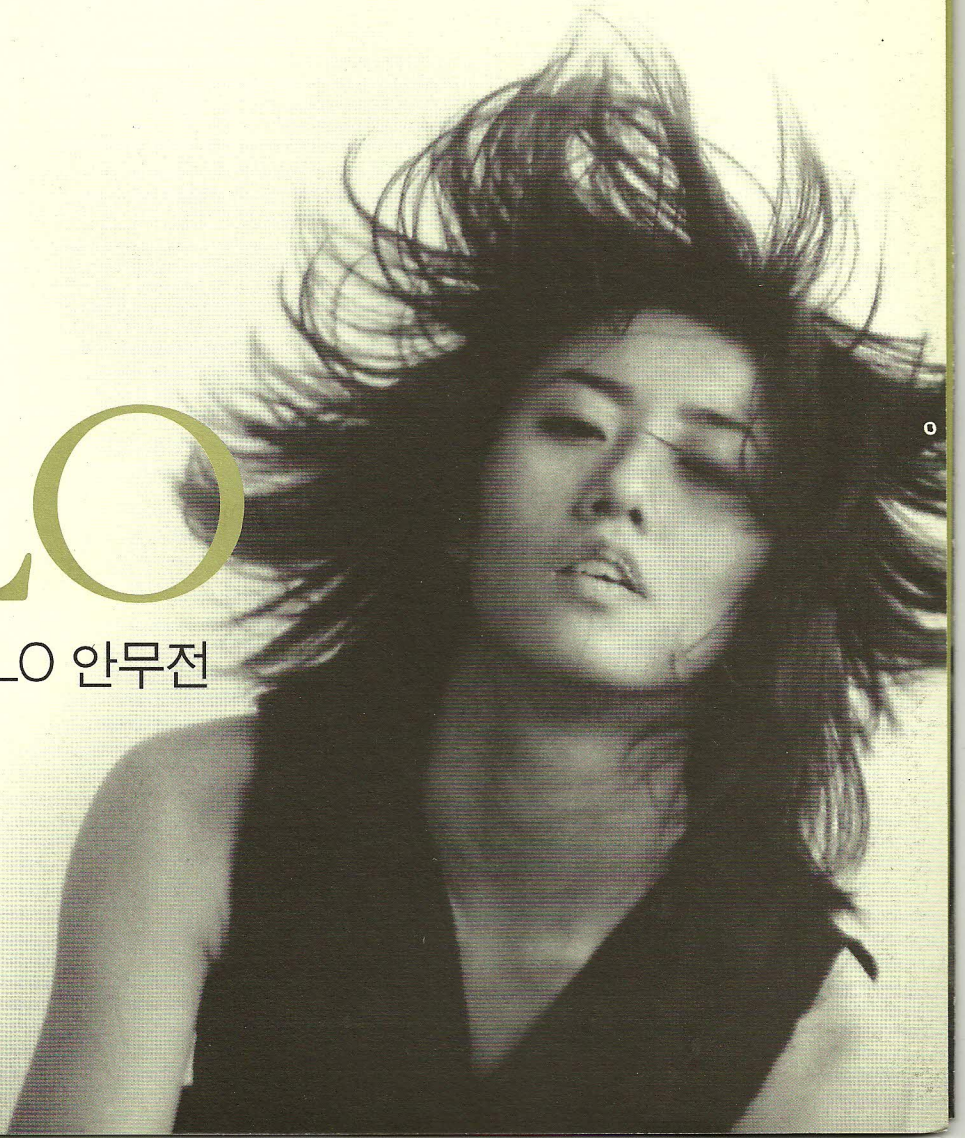


SOLO

강미리 홀무용단 SOLO 안무전



SOLO



소멸(消滅) 굿

안무 및 출연: 최재원

욕심이 많아 슬픔이 많네...
슬픔이 많아 눈물도 많네...
뽀뽀이 흩어져라 없어져라...
욕심아 슬픔아 눈물아...

쏟어내고 깡그리 쏟아내어...
다시 채우고 싶어라...
빈 껍데기 헐헐 풀어 춤추고 싶어라...

- 홀무용단 정단원
- 전 울산시립무용단 단원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졸업
- 주요작품: 「령무(靈舞)」, 「심(心), 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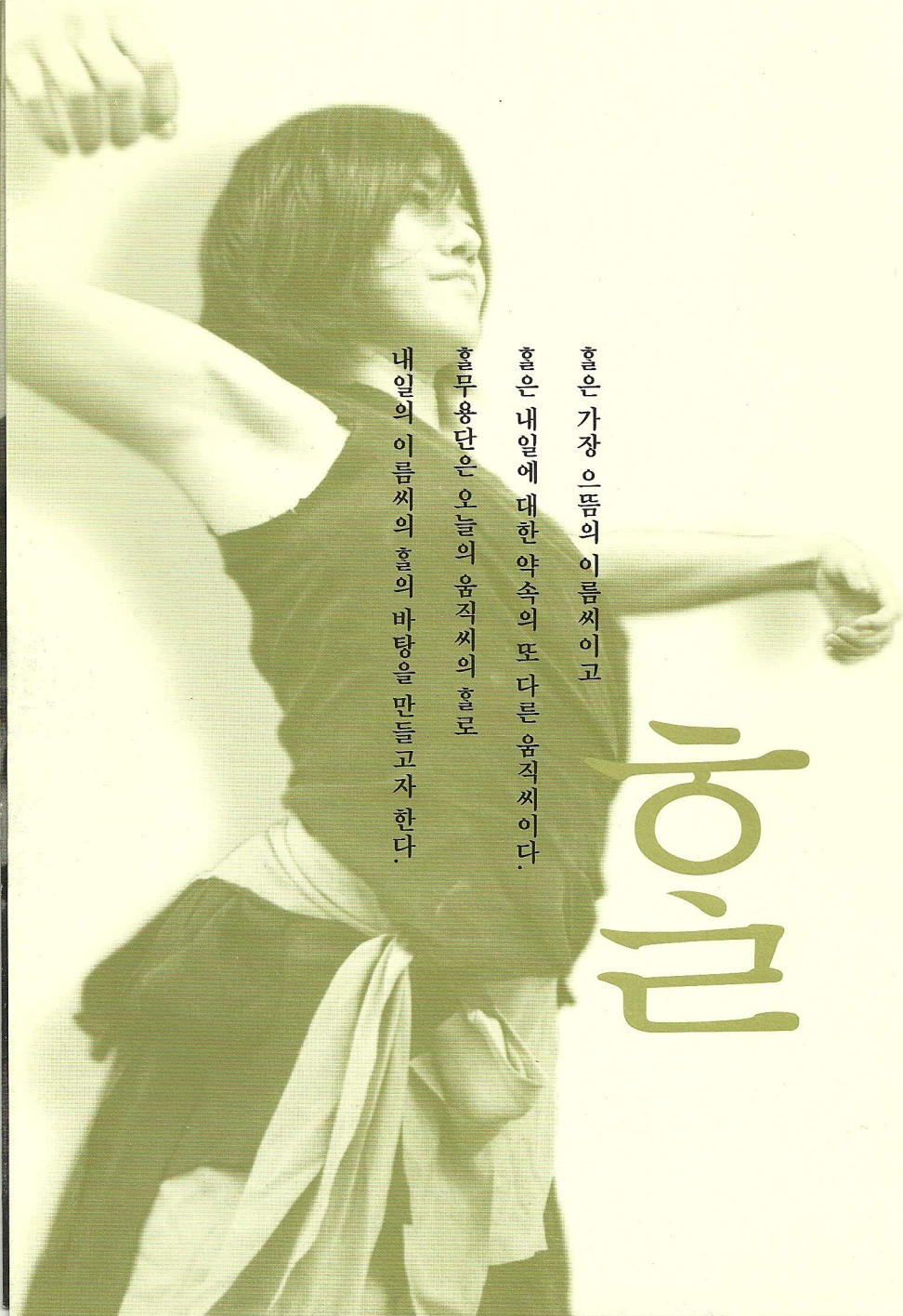
영혼

영혼은 가장 으뜸의 이름씨이고

영혼은 내일에 대한 약속의 또 다른 움직임이다.

홀무용단은 오늘의 움직임씨의 홀로

내일의 이름씨의 홀의 바탕을 만들고자 한다.



강미리 홀무용단 SOLO 안무전



길

안무 및 출연: 이수영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나의 길이다.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은 나지만,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은 그 길이다.
길 위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 길의 일부이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나의 길이다.

- 홀무용단 준단원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4년 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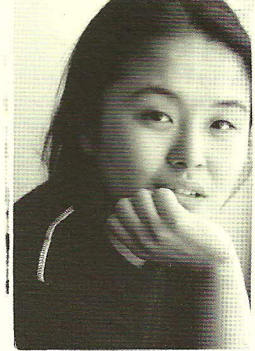


바람은 감은 눈 위로...

안무 및 출연: 이재은

삶은 유령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 없다는 것
"눈 뜬 봉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할 것이다.

- 홀무용단 준단원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4년 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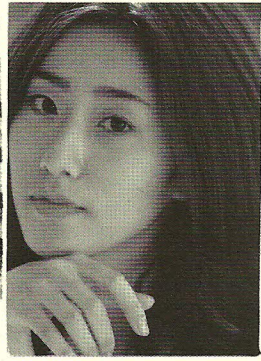
인간의 무게

안무: 오보니
출연: 오보니, 이진아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일까?
내 자신...
혹은 인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긴다... 당긴다...
아니 누른다... 누른다...
그리곤 내가 없다.

- 홀무용단 준단원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4년 재학





나는 아직 이 실 끝에 있는가...

안무 및 출연: 김혜진

왜 이렇게 엉켜 있는가...
가슴이 저러 생의 몸짓을 생각한다
우렁찬 포효도 좋다
무겁게 자리잡은 침묵도 좋다
엉켜버린 나의 실타래를 이제는 풀어야 한다.

- 홀무용단 준단원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4년 재학

가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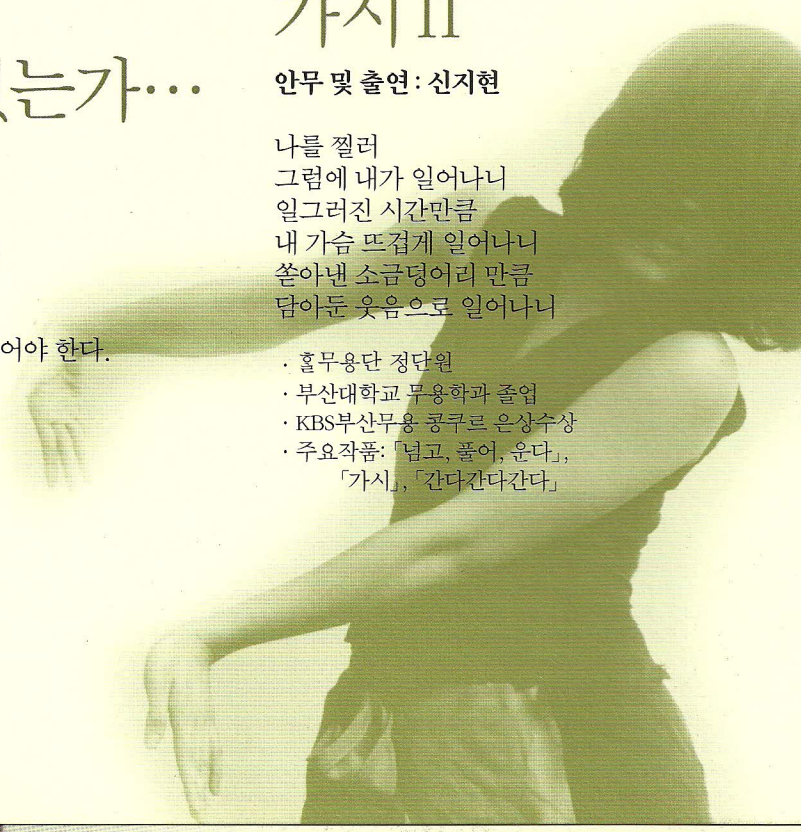
안무 및 출연: 신지현

나를 찢러
그림에 내가 일어나니
일그러진 시간만큼
내 가슴 뜨겁게 일어나니
쏟아낸 소금덩어리 만큼
담아둔 웃음으로 일어나니

- 홀무용단 정단원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KBS부산무용콩쿠르 은상수상
- 주요작품: 「넘고, 풀어, 운다」,
「가시」, 「간다간다간다」

STAFF

예술감독: 강미리
조명: 권성훈
음향: 전소연
홍보: 김경미
왕정희
진행: 김기하
홍연희
이희정
공신엽
황민경



해가

바뀔 때마다 자연의 모습이

또 다른 깊이로 다가오듯이

공연을 준비하는 춤꾼들의 색깔도

한해가 다르게 진해져 감을 느낍니다.

세상사는 힘에 밀려 춤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우리를 잡아주는 힘이 춤뿐임을 확신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춤이

허망하고 사치스러운 꿈의 행위로 보일지 모르지만

춤꾼에게는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춤을 통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맛보았다면

그들 인생에서 맞닥치는 더한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이겨낸

춤꾼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SOLO

예술감독 강 미 리

